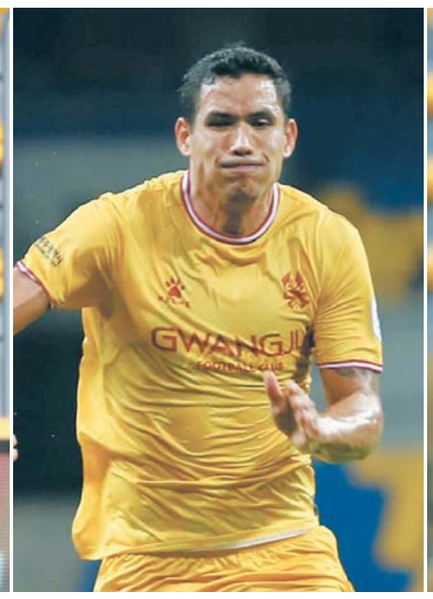
‘최강’ 광주 “그래도 승리에 목마르다”

헤이스


산드로

마이키

광주FC, 내일 안산 원정 4연승 도전

거침없는 질주…2위 부천과 승점 13점차 독보
물 오른 ‘브라질 트리오’ 선봉 화끈한 승리 예약

K리그2 단독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프로축구 광주FC가 4연승에 도전한다.

광주는 오는 13일 오후 8시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안산그리너스와 하나원큐 K리그2 2022 32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광주의 행보가 거침없다. 지난 라운드 충남아산FC 원정을 떠난 광주는 산드로와 마이키의 득점에 힘입어 2대0 승리를 거뒀다.

이 날 승리로 승점 61점을 기록, 추격자 2위 부천(승점 48), 3위 안양(승점 48), 4위 대전(승점 47)과의 격차를 벌리며 승격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광주가 왜 리그 1위인지를 여실히 보여준 경기였다. 광주는 상대의 끈끈한 조직력과 강한 압박에도 불구, 탄탄한 수비와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끝까지 득점 기회를 노리며 포문을 열었다.

최근 3연승과 함께 7경기 연속 무패(4승 3무).

광주는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 더 많은 승점과 승리를 거두겠다는 각오다.

브라질 트리오의 활약이 눈부시다. 산드로는 지난 라운드 전반 종료 직전 이으뜸의 날카로운 패스를 득점으로 연결, K리그 데뷔골과 함께 2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기록했다.

헤이스와 마이키는 날카로운 패스와 드리블로 상대 골문을 노렸으며, 경기 종료 직전 팀의 쐐기골을 합작해내는 등 맹활약을 펼쳤다.

중원과 수비 조직력도 안정감을 더하고 있다.

이순민과 정호연은 공수 연결고리와 살림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으며 수비진은 최근 3경기 무실점을 기록하는 등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수비의 한 축인 김재봉이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지만 안영규, 아론, 김현훈, 박한빈 등 센터백 라인은 누가 나와도 제 몫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걱정 없다.

이번 상대 안산은 6승 9무 14패로 리그 9위에 올라있다. 끈끈한 수비 조직력과 타이트한 압박이 강점이며 두아르테, 티아고, 최건주, 아스나위 등 한방을 갖춘 선수들이 즐비하다.

하지만 광주는 안산에게 강했다. 역대 전적 5승 2무 3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올 시즌 두 차례 맞대결에서도 전승을 거뒀다.

광주는 승리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적극적인 압박, 빠른 공격 전개로 상대 골문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광주가 안산을 꺾고 4연승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희중 기자

정해영 ‘너마저…’

어깨 염증 1군 말소…‘필승조’ 해체된 KIA 가을야구 위기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필승조’ 장현식·전상현에 이어 마무리 투수 정해영까지 부상으로 1군에서 말소되는 위기에 봉착했다.

KIA 구단은 11일 대구 삼성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경기를 앞두고 마무리 투수 정해영이 어깨 부위에 염증이 발생해 1군 엔트리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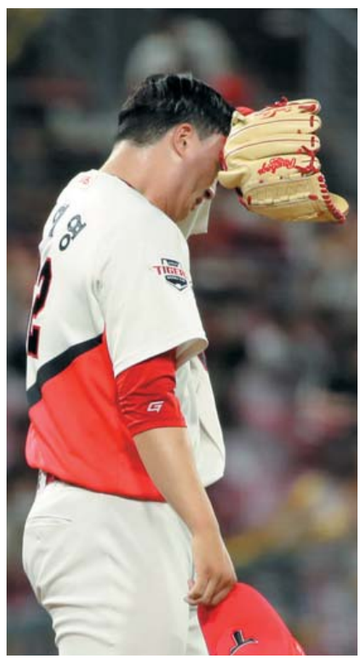
전날 삼성전에서 9회 등판해 1이닝을 1안타 1탈삼진 1볼넷 무실점으로 막아냈던 정해영은 경기를 마친 뒤 어깨 이상을 구단에 알렸고, 검진 결과 염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주 정도 경과를 지켜보며 치료를 해야 하는 까닭에 정해영은 올 시즌 처음으로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지난달 팔꿈치 부상으로 장현식과 전상현이 빠진 상태서 마무리 투수 정해영까지 전력에서 이탈하면서 KIA는 사실상 ‘필승조’가 완전히 해체된 상태로 남은 시즌을 보내야 한다.

당장 정해영을 대신할 마무리 투수로 누구를 내세워야 할지도 막막한 상황이다.

전반기 내내 선발진에서 활약한 한승혁이 지난달 27일부터 불펜으로 기용되고 있지만, 들쑥날쑥한 제구력 문제로 코치진의 믿음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다.


어깨 부위 염증으로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된 KIA 마무리 투수 정해영. /연합뉴스 자료사진

KIA 김종국 감독은 이날 경기 전 취재진 인터뷰에서 “선수가 부담을 느낄 수 있어서 마무리 투수로 못 박지는 않겠다. 지금 가장 좋은 선수를 마무리로 기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2년 사격 꿈나무선수단이 전남도국제사격장에서 하계합숙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내일은 태극마크, 꿈 향해 쏜다”

2022 사격 꿈나무선수단, 나주서 하계훈련 구슬땀

차세대 한국 사격 주역들이 나주에서 하계 합숙훈련에 한창이다.

전남도체육회는 11일 “2022년 사격 꿈나무선수단이 지난 2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전남도국제사격장에서 하계합숙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고 대한체육회가 주최하는 사업으로 대한사격연맹이 주관을 맡아 매년 진행되는 것으로 꿈나무선수들은 전담지도자들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받게 된다.

사격 꿈나무 합숙훈련은 코로나19로 인해 2년 동안 비대면으로 실시했으나 이번 훈련부터 다시 대면으로 전환해 나주시에서 2주간 전지훈련을 진행한다.

이번 하계 합숙훈련은 기본체력, 기초기술 및 정신훈련을 위주로 진행된다.

박희복(대전대신고) 감독 중심으로 소총에 이희석, 윤동희 코치, 권총에 안효숙, 장나영 코치 등 전문지도자 4명과 의무트레이너 1명,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권총선수 14명(남녀 각 7명), 소총선수 14명(남녀 각 7명) 선수 28명, 총 34명으로 구성됐다.

심재현 전남도사격연맹회장은 “훈련 선수단의 방문을 환영한다”며 “꿈나무 대표선수들이 차후 대한민국 스포츠를 이끌어 나갈 선수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리틀 우생순’, 세계청소년여자핸드볼 제패

덴마크 등 유럽 강호 연파
비유럽권 국가 첫 우승 신화
‘득점 2위’ 김민서, 대회 MVP

한국 18세 이하 여자핸드볼 대표팀이 전통의 강호 덴마크를 물리치고 세계선수권을 제패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김진순(인천비즈니스고)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은 11일(한국시간) 북마케도니아 스코페에서 열린 제9회 세계여자 청소년핸드볼 선수권대회 결승에서 덴마크를 31-28로 물리쳤다.

18세 이하 선수들이 실력을 겨루는 이번 대회에서 ‘핸드볼의 본고장’ 유럽 팀들을 상대로 8연승을 거둔 한국은 비유럽 국가 최초로 세계여자 청소년선수권 우승을 차지했다.

이 대회에서는 비유럽 팀이 4강 이상에 든 사례도 2006년 준우승, 2016년과 2018년 3위에 오른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 여자 핸드볼이 세계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1988년과 1992년 올림픽, 1995년 세계선수권(성인), 2014년 20세 이하 세계선수권에 이어 이번이 통산 다섯 번째다.

체격과 힘을 바탕으로 한 유럽 핸드볼과 달리 아기자기한 스타일의 한국 핸드볼에 매료된 유럽 팬들과 심지어 다른 나라 선수들까지 관중석에서 한국을 응원하는 모습이 국제핸드볼연맹(IHF)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사로 소개될 정도로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돌풍의 주역’으로 우뚝 섰다.

11일 북마케도니아 스코페에서 열린 제9회 세계여자 청소년핸드볼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강호 덴마크를 꺾고 비유럽권 국가 최초로 우승을 차지한 한국선수단이 메달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국제핸드볼연맹 제공>

32개 나라가 출전한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스위스, 독일, 슬로바키아를 연파했고, 결선리그에서는 루마니아와 네덜란드를 돌려세운 한국은 이후 스웨덴(8강), 헝가리(4강), 덴마크 등 유럽의 내로라하는 핸드볼 강국을 연달아 물리치며 세계 무대를 제패했다.

한국은 제1회 18세 이하 세계선수권이었던 2006년 결승에서 덴마크에 33-36으로 패한 아픔도 설욕했다.

또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결승에서 덴마크에 승부 던지기 끝에 분패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은메달의 아쉬움까지 통쾌하게 털어낸 셈이 됐다.

덴마크는 1996년과 2004년 올림픽 결승 등 주요 고비마다 우리나라의 앞길을 가로막았던 핸드볼 강국이기도 하다.

이번 대회 최우수선수(MVP)에는 득점과 어시스트 부문에서 모두 2위에 오른 김민서가 선정됐고, 이혜원이 라이트백, 차서연(일신여고)은 라이트윙 포지션에서 대회 베스트7에 이름을 올렸다.

대표팀은 13일 오후 우승 트로피를 안고 금의환향한다. /연합뉴스

한·중·일·대만 4개국 출전 ‘국수산맥 국제대회’ 오늘 개막

전남도는 11일 “제8회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가 12일 강진실내체육관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15일까지 강진, 영암, 신안지역에서 국내외 프로기사들의 한판 승부가 펼쳐진다”고 밝혔다.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는 전남이 배출한 김인, 조훈현, 이세돌로 이어지는 한국바둑 국수(國手)의 명성을 이어받고 전 세계에 바둑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만든 대회다. 국내외 프로기사와 전국 아마추어 청소년들도 참가한다.

세계프로 최강전에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에서 16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최강자를 가린다. 한국은 세계 1위 신진서, 2위 박정환과 지난해 우승자인 변상일을 비롯해 김지석·원성진 등 8명이 출전한다. 중국에선 미위팅·딩하오·자오천위 등 3명이, 일본에선 이야마 유타·쉬자위안·이치리키료가, 대만은 와위안쥔·라이쥔푸이 출전한다.

국내 프로대회에는 지난해 우승자 박영훈 9단을 비롯해 이지현·한승주·최철한, 여자 기사 오유진 9단과 김채영 7단 등 29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이와 함께 랭킹시드를 받은 이창석·박건호 선수, 후원사 시드 1명이 합류해 우승 경쟁을 벌인다. /김재정 기자

‘건강한 시민…행복한 광주’

광주시체육회, ‘스포츠 어게인 1·1·1’캠페인 전개

광주시체육회가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운동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1·1 운동’ 캠페인을 전개한다.

‘1·1·1 운동’은 하루에 한 종목을 한 시간 운동하자는 활동 슬로건으로,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의 민선 2대 체육회 공약사항이다.

광주시체육회는 코로나19가 또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지만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즐기며 건강을 되찾도록 돕기 위해 ‘1·1·1 운동 캠페인’ 홍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먼저 생활체육지도자의 재능기부를 통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광주시체육회는 또 내년부터 ‘1·1·1 운동’ 확대 추진을 위한 예산, 인력 및 장소 등을 확보하기 위해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등과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동 회장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건강을 되찾고 활력을 불어넣고자 ‘1·1·1 운동’을 시작하려고 한다”며 “매일 운동을 생활화해 모든 시민이 건강한 광주가 될 수 있도록 광주시체육회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